# 모든 것을 마음 밖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 A19면에서 계속

많이들 그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죠. 요다음 생에는 권리도 좀 갖게 하고 삶도 좀 갖게 하고 인연들도 잘 만나서 자식 부모를 잘 만나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해서 어떻게 사나 그거를 또 참작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고 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여도 네가 하는 거고 살려도 네가 하는 거고, 네가 형성시킨 모습이 너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움죽거리고 사는데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그렇게 간다면 앞서의 업이 이만한 덩어리가 있다면 이만한 덩어리가 빨리빨리 제거가 되면서 이게 되지만 말입니다, 그거 하나로 인해서 또 그 차원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만나서, 자기를 만남이 없이 만나서 통해야 다른 데 부처님하고도 전부 통하게 되어 있어요. 내 부처하고 통해야 모든 부처님하고 통할 수 있고, 하다못해 지신 용신 뭐, 허공신 모두 통할 수 있죠. 그래서 공식으로서의 공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립니다. 하나도 몰라 가지고는 거기 끼일 수가 없죠. 생각하면 중노릇하는 게 무척 어려운 겁니다. 밥을 먹으나 굶으나 누우나 자나 항상 이것은 어느 대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닙니다.

누가 왔다 갔는데 참 그분들이 고생을 무척 하더라. 근데 그게 보면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런데 어떤 거는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저 정말 자기가 나오기 이전에 있던 데로 가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어떤 거는 아주 영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딱 막혀서 그거를 차원을 벗겨 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중노릇하기 쉽다고 하겠습니까? 남이 볼 때는 참 쉽죠. 옷 그냥 남이 주시는 거 입고 남이 주시는 거 먹고 그래서 모두 살고, 그래 편안한 줄 아시죠? 아주 편안한 줄 아시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아신다면은 아마 깜짝 놀라면서, 놀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밤이나 낮이나 항상 나 아닌 나는 움죽거려야 하고 함이 없이 해야 하고 여러분들을 항상 생각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저기서 그러고 이렇게, 그거를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 그러지 알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알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인 거죠.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더라도 그 고생을 하면서도 알아야 하니까 "한군데를 믿고 한군데다 관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공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공부만 잘하시면 정말 이 나라도 남의 나라도 없고 내 나라도 따로 없지만 그래도 지구라는 이 혹성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지구가 내 동네죠. 그러니까 우선 급한 거는 우는 어린애를 더 먼저 안아서 먹을 걸 주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무난히 앉아 계실 때는 살아가시는 거, 살아오신 거 그것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아주 자기 주인공을 믿고 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체험을 얻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중 아닌 중이 되시죠.

여러분하고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머리 깎는 거, 옷 입는 거, 생활 사는 것도 모두가 다르죠. 그 다른 생활을 그냥 '아이고, 이건 고생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도 중노릇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조그맣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에 큰 우주가 여기에 붙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불 속에도,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도 뜨거운 것도 없는 걸 아시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는 걸 모르고 산다 이런 것도 아시고, 걸림이 없이 사실 겁니다.

우리 스님네들은 더욱더 우리가 부모의 인연을 받고 이 세상에 나서 남들을 위해서 하기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남을, 오는 사람을 위해서 또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굳게 닫힌 문을, 저 승 문을 여는 셈이나 같죠. 굳게 닫힌 저승 문을 연다. 저승 문을 열 줄 알아야 이 사람들을 제도한다. 이 사람이 다니는 문이 문인 줄 알지 말라. 사람이 겸손하고, 좀 미련하더라도 인정이 있고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이런다면 진짜 중이다 이겁니다.

### 억울한 일이 생기면

**질문**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참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안일까요?

**답변** 옛날이라고 할까요, 내일이라고 할까요, 오늘이라고 할까요. 어느 동자가 말입니다, 부처님과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부처님께서 동자더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자야!" "예." "내 발과 네 발이 차이가 어떠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동자 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고?" 하고 또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동자 대답하기를 "내가 부처님한테 가면은 부처님이 하나가 되시고 부처님이 내게로 오면은 내가 하나가 되니, 어찌 차이가 난다 하겠습니까?" 했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고?" 하고 또 물었답니다. 이리 가도 하나고 저리 가도 하나라니 말입니다.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건 어디로 돌아가는고?" 하고 부처님께서 또 물었답니다. 이 소년은 "박 넝쿨이 담 너머로 넘어가서 박이 열린 까닭입니다." 했더랍니다. 그러니 부처님 말씀이 또 "박은 그래 여여한가?" 했더랍니다. "박은 제 나무에서 익어서 맛이 좋습니다."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 만공에 꽃이 두루 피고 향기가 두루 나고 만 가지 맛이 나는구나. 그대로 그냥 그냥 익었도다." 했더랍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 말을 그대로 연결해서 침착하게 그 과정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경전으로 알려고 하지도 말고 내 마음 가운데서 '아, 양발이 같을 수가 있고, 너한테로 가면 네가 하나가 되고 얘한테로 오면 이게 하나로 되고, 둘이 아닌 고로 그 하나는 담 너머로 박 넝쿨이 넘어가서 박이 열린다.' 그 박도 익었어야죠, 또. 그래야 제맛이 나겠죠? 하하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마음 밖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수없는 억겁을 통해 진화돼서 나오면서 그래도 선근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인연이 없다면 모이질 않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손수건을 하나 들어도 인연입니다. 이 손수건을 내가 들어 주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손수건이라는 이름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써 주니깐 바로 이 손수건이라는 빛이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모든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인연들도 같이 만나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철 나와서 만남인데 이 만남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느냐, 구덩이로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의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착하게 마음을 쓰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악하게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항상 부드럽게

> 어떠한 억울함도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 한마음에다 맡겨 놓고 '네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 물러서지 말고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하고 거기다 맡겨 놓는다면
> 자기라는 게 없어집니다.

내 마음, 이 한마음 속에 더불어 같이, 내면이나 외부나 모든 것이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이 한마음 속에 모든 것을 놓으시고, 거기다 맡기시고 어떠한 억울함도 거기다 맡겨 놓으세요.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맡겨 놓고 '네놈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물러서지 말고,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하시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자기라는 게 없어집니다. 부드럽게 말하시고 행동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렇게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면 아마 조건 없는 사랑이 내 앞에 올 것입니다. 이 도리, 미묘한 도리를 여러분은 직접 실험해 보십시오. 실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모릅니다.

### 돈이 들어오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질문** 저는 종업원 몇 명을 두고 조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다 맡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돈이 들어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되는 쪽으로만 마음을 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한다면 풀 한 포기 하나도 스승 아닌 게 없어요. 부처님만 스승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강도 짓 하는 사람을 보고도 깨닫는 게 있어요.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풀 한 포기도, 돌 하나도, 물 흘러가는 것도 다 스승이에요. 그렇게 스승 아닌 게 없으니까 그거를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거죠.

모두 일체 만물만생 또는 삼세, 과거·현재·미래를 한데 합쳐서,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한 거니까, 그 주인공 하나만 생각하면 뜻으로다가 그냥 둥글려지죠. 그렇게 간단하게 하세요. 이것저것 자꾸 생각하다 보면 곧장 들어갈 것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데 모으셔서 그 자리에 맡기고 지켜보는 그런 참선자가 되세요.

진짜로 믿는다면 고꾸라지든지 가든지 오든지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거기다 턱 맡기고 그냥 진짜로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돈이 많이 벌려도 걸림이 없고요, 돈이 안 벌려도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기 때문에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도리를 간단히 생각하세요. 돈을 수만억을 번다 하더라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 혼자 갖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번 것도 아니고, 혼자 가질 것도 아니고, 혼자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 걸려요? 내가 이렇게 많이 버니까 내가 또 많이 번다고 하는, '내가'라는 생각이, 나를 내세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지, 한마음이라는 주인공에서 본다면 그렇게 나가 많은데, 일체가 다 나 아님이 없는데 구태여 왜 거기 걸립니까? 그러니까 선지식들은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죽인 사이가 없고, 깨치지 못한 자는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살생이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증득해야 그게 알아져요.

몇만 냥을 벌더라도 또 욕심을 내서 '저걸 벌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나도 당신 혼자 그런 생각이 난 게 아니에요. 수십억의 의식들이 한데 모여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무조건 믿고 거기 맡겨 놓고 지켜보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에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제41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일 정 : 2024년 9월 28일~11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후 1:30~5:30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문 의 : 031-470-3200/3198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